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중앙교회
Busan Jungang Presbyterian Church

fall 2017.09 vol.17

2017 가을

한울타리



부산중앙교회 한울타리 공동체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기쁨과 눈물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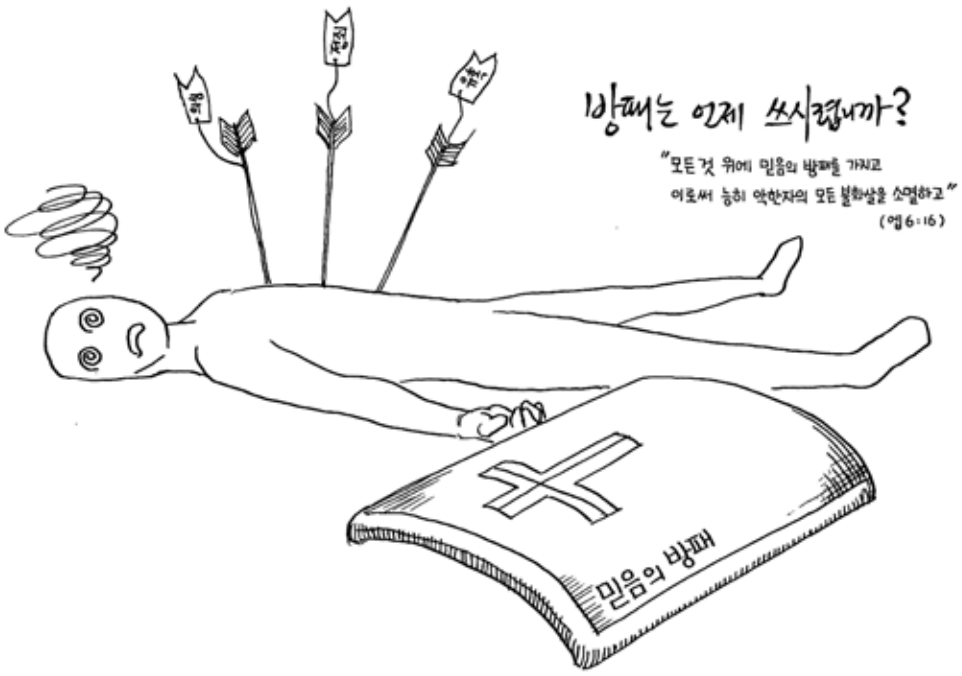

방패는 언제 쓰시겠습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엡6:16)
믿음의 방패

그림 / 손정훈 강도사

CONTENTS

한울타리 2017년 9월 통권 17호

02 그림묵상 | 방패는 언제 쓰시렵니까

04 담임목사 칼럼 | 종교개혁의 과정과 의미

06 문화 | 큰바위얼굴을 닮은 사람

08 훈련 |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를 읽고

10 훈련 | 행복한 전도꾼을 소망하며

12 선교 |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좌절했지만

14 목장 | 이민직 청년부 목장

16 국내선교 | 농촌봉사 사천곤명교회 1박2일

18 주일학교 | 유년부, 초등부 여름수련회

20 주일학교 | 중등부, 고등부 여름수련회

22 청년부 | 1청년부, 2청년부 여름수련회

24 환경 | 우리교회 안의 식물 – 무궁화

26 시 | 우리 꽃 민들레

28 사진묵상 | 절실한 것은 사랑









종교개혁의 과정과 의미



최현범 담임목사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 루터가 뷔텐베르그 대학교회 정문에 면죄부를 반박하는 95개조문을 붙인 날을 기념하여 10월 31일을 종교개혁기념일로, 또 이에 맞춰서 10월 마지막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영어로 Reformation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종교개혁보다는 교회개혁이라는 번역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루터는 종교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교회를 개혁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개혁운동은 교회를 바꾸는 교회사적인 사건일 뿐 아니라, 유럽사회를 바꾸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가톨릭 중심의 단일사회였던 유럽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서서히 다원화된 사회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획일적인 시스템과 가치에 경도되었던 사회에서 이제 다양한 시스템과 가치를 받아들이고 공존할 줄 아는 사회가 되는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루터 이전에 이미 영국의 위클리프나 보히미안의 후스등의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사회는 아직 그들이 외치는 진리의 소리를 들을 만큼 무르익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은 당시 신성로마제국으로 불렸던 독일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종교개혁의 중심에 서있는 루터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가던 친구가 벼락맞아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루터는 사제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명석하고 경건한 루터는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항상 구원의 문제를 놓고 씨름했습니다. 자기 속에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늘 그의 내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몸담고 있었던 가톨릭의 신학, 특히 그릇된 구원관에 기인하고 있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편에서 죄를 멀리하려는 경건과 착한 행실이 구원에 필수적이라 했습니다. 성화에 대한 강조가 그만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어 구원론을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변질된 신학과 교회 전통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임으로 인해서 성경과 더 멀어져갔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신학에서 방황하다가, 성경 속에서 이신칭의의 진리를 다시 발견하고 죄와 두려움에서 해방되면서 은혜의 신학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기초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결정적인 사건은 면죄부였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지옥이나 연옥에 있는 부모 형제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 교황의 허락 하에 교회가 이렇게 면죄부 장사를 했습니다. 그 속에서 당시 가톨릭의 그릇된 신학과 아울러 교회타락의 극치



를 보게 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교회는 세상 권력과 돈에 깊이 오염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면죄부 판매는 유달리 신성로마제국인 독일에 집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절대왕정이 확립된 영국이나 프랑스의 왕들이 자기 나라의 돈이 교황청으로 흘러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여러 작은 나라들로 나뉘어져 있어 교황을 견제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곳은 로마교황에게 돈을 대어주는 젖줄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면죄부의 폐해가 심각하다보니 의식 있는 사람들, 특별히 제후들에게는 큰 불만이 되었으며, 이것이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루터의 면죄부 반박은 교황을 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최종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정죄당해 공민권이 박탈되었습니다. 루터는 법정에서 나오면서 일단의 기사들에 의해 납치되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루터가 교황의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루터를 지지하는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군대를 보내어 그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루터를 중심으로 가톨릭에 대항하는 프로테스탄트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가톨릭 세력과의 전쟁을 불가피한 것이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17세기에 온 유럽은 30년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되었고, 그것은 베스트팔렌조약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조약에서 가톨릭과 개신교는 서로의 신앙을 존중해주기로 했고, 이것이 종교의 자유로 발전되면서 유럽사회는 다원화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개신교는 루터교를 필두로 해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교단 등등 많은 교파로 나뉘어져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교파가 갈라진 것은 분열이라는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서로가 달리 추구하는 신학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폭을 넓히는 역할도 했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복음서가 4개인 것과 같습니다. 같은 말씀과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색깔이 다르고 저자가 보는 눈이 다름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더 큰 유익을 줍니다. 이처럼 다양한 교파에서 가르치는 것이 서로에게 자극을 주면서 복음과 신앙을 더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루터로부터 시작된 개신교는 오랜 세월 속에서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의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개혁을 외치면서 시작했지만,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세계에 있는 개신교회와 한국개신교회 속에 그런 모습이 많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종교개혁의 교부인 칼빈의 말에 귀를 기울입시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정신입니다.
이제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이 종교개혁정신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보다 복음에 합당하고, 보다 생명력 있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요15:5)

글 / 박문태 집사

높은 산들 사이로 골짜기가 있는 동네 한쪽 절벽에는 사람 얼굴 형상을 한 큰 바위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골짜기에서 큰바위얼굴의 모습을 한 아이가 태어나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하고 높은 인물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어니스트 역시 어머니로부터 이 예언의 말을 듣고 늘 큰바위얼굴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이 바위를 닮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유년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니스트가 소년이 되었을 무렵, 큰바위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형 선단을 보유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고향으로 돌아와 여생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처럼 돈이 많다면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살펴 줄 것으로 어니스트는 기대했습니다.

거지 노인과 두 아이가 부자가 탄 마차를 향해 손을 내밀며 슬픈 목소리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에게 구리 동전 몇 개를 떨어뜨리고 지나가는 부자의 모습에 어니스트는 실망하고 돌아섰습니다.

어니스트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늘 그렇듯 하루 일과를 마치면 오두막집 문가에서 큰바위얼굴을 보며 생각에 잠기곤 하는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니스트는 성실했으며 따뜻하고 겸손했습니다.

오래전 이 골짜기에서 태어난 소년이 유명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일생을 바친 장군이 퇴역하여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축포와 월계수, 펄럭이는 깃발 속에 양 어깨에 번쩍이는 훈장이 달린 그를 보며 사람들은 머리카락 한 올까지 큰바위얼굴을 닮았다고 소리쳤습니다. 어니스트는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이 장군이 지혜를 말하고 선한 일을 하며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인물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쌓여 연설하는 장군을 본 순간, 전쟁과 풍상을 겪으며 다져진 힘과 굳센 의지는 보였지만 큰바위얼굴의 부드러운 지혜나 깊고 넓은 온화한 마음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니스트는 한숨을 쉬며 사람들을 등지고 돌아 나왔습니다.

어니스트는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농사일로 생계를 꾸리며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조용히 흐르며 지나가는 자리마다 푸르름을 만드는 시냇물처럼 그가 일상 속에서 행했던 차분하고 신중한 선의의 행동들은 주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이웃에게 축복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진실은 듣는 사람들의 삶을 움직였고 새 삶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럴 즈음, 신문에 큰바위얼굴을 닮은 정치인이 나타났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그곳을 떠나 법과 정치에 몸담았습니다. 그의 언변은 돈과 전사의 칼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언변으로 크게 성공을 거두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마침내 대

통령후보로 나서서 고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악대와 기병대의 깃발과 저명한 사람들을 동반하고 휘황찬란하게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모자를 하늘로 던져 올리며 큰바위얼굴과 닮았다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화답하는 그의 얼굴을 보았을 때, 이 정치인의 퀭한 두 눈에는 능력은 많지만 목적이 없는 사람처럼 지친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진실성을 불어넣어 줄 고귀한 목적의 결여로 그는 높은 것을 이루고도 삶이 허무하고 공허했던 것입니다. 어니스트는 절망에 사로잡혀 쓸쓸히 돌아섰습니다.

세월은 어니스트의 머리를 하얗게 세도록 만들었고 그의 이마와 뺨에 너그러운 주름을 새겨 주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어니스트는 해질 무렵 이웃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언덕 사이 작은 빈터 연단에 올라 자신의 가슴과 머리에 담긴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각과 말에는 진실과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과 조화되었으며, 선한 행동과 고결한 사랑이 그의 인생 안에 고스란히 녹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백발의 영광을 가진 온화하고 다정하며 깊은 어니스트의 얼굴을 보던 누군가가 손을 번쩍 들고 소리쳤습니다. “보십시오! 어니스트를 보십시오! 그가 바로 큰바위얼굴을 닮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큰바위얼굴과 어니스트를 번갈아 보며 그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언은 실현되었습니다.
어니스트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자 여전히, 자신보다 더 지혜롭고 훌륭한 큰바위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 주기를 바라며 천천히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큰 바위 얼굴 by 나다니엘 호오손

■ ‘주님은 포도나무요 저희는 가지라’ 하셨습니다. 가지는 다른 무엇이 되려하거나 특별하지 않더라도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기만 하면 양분을 공급받아 잎사귀가 무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남천동 황령산 자락에 자리 잡은 부산중앙교회에 교적을 두고 믿음생활하고 있습니다.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합니다. 목장모임에 꼬박꼬박 참석해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와 말씀을 나눕니다. 조이부터 사역훈련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배우며 삶 속에 적용하려 애씁니다. 성경읽기표에 맞춰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담임목사님의 목회철학을 공유하며, 1월의 새해특새, 5월의 새생명축제, 여름의 영성수련회, 가을사랑축제와 가을특새 등, 목회일정에 성실히 참여합니다. 교회위원회에 소속되어 책임감을 갖고 성도를 섬깁니다. 한결같진 못하지만 이웃 섬기는 사역에도 동참하곤 합니다. 이러기를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수십년의 세월이 차곡차곡 쌓여, 머리가 희끗해지고 얼굴에 주름이 생길 때쯤이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모습 닮아 있을런지요. 멀리가지 않더라도 대단한 일 해내지 못하더라도 지역교회를 잘 섬기며 주님 곁에 꼭 붙어있기만 해도 제 안에서 소박하고 은은한 예수 냄새 배어나겠지요. 언젠가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를 읽고

글 / 16기 남자 제자반 이준석

제자훈련 과제로 매 주 한 권씩 책을 읽고 요약하는 것이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나보다. 다음 책은 어떤 내용일까? 어떤 은혜가 있을까 기대하며 책을 펼치게 되니 말이다.
그런데 이번 책은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다. 전도가 쉽다니...
그렇게 약간의 긴장감과 호기심을 가지고 첫 장부터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책에는 전도에 대해 지극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의 체질을 바꿔가시는 한 목사님과 그 교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 그 교회 목사님의 유별나고 파격적인 사역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도에는 관심이 없고 돈을 모아서 교회에 필요한 살림을 구비하는 여전도회와 개를 키워 때만 되면 보신하기에 바쁜 남전도회를 과감하게 없애버리셨다.
또 노래는 잘 하는데 복음 전하는 일에는 소홀히 한다고 성가대를 없애버리기도 했고, 새신자를 위한 예배형식 변화 구역체제 개혁을 감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권사가 전도와 기도에는 관심이 없고 고추밭에 고추만 애지중지하는 것을 보고 고추를 다 뽑아버린 일을 비롯해서 영혼구원과 전도에 관한 일이 아니라면 모조리 버리고 고쳤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너무 심하다, 저렇게까지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 전도의 열정이 생겨나고, 불신자전도를 통해 2천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보며 신선한 충격을 받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도에 대해 소극적이고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나아가 나도 전도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했고 복음에 대한 확신도 새롭게 심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면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사람들의 불신의 장벽도 허물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우리교회 새생명 축제에 초대하려고 2년 전부터 공들여 왔던 회사 동료가 있다. 그는 나를 볼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놀리듯 농담을 하면서도 내가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권면을 하자 벌써 4번째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그 아내

도 함께 데리고 온 것을 보고 너무 신기했다.
내가 뿌린 씨를 언젠가, 그리고 누군가 반드시 추수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당장 전도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기도와 전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 삶을 통해 더욱 모범을 보이리라 다짐해본다.
전도해야한다는 부담감만 가지고 있으면 전도는 어렵다. 그러나 막상 전도를 하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전도는 쉽다.
제자훈련을 통해 복음을 더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또 다른 이에게 들려주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날마다 거듭나게 되기를 소망한다.



행복한 전도꾼을 소망하며

제 2기 BJ전도 훈련을 마치고

서은영 집사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는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저를 찾아 오셨고 하늘의 양식을 주셨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인생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는 서은영집사라 합니다. 부족하지만 지난 5월17일부터 7월12일까지 8주간의 제2기 BJ전도훈련 마친 소감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BJ 제1기 전도훈련을 수료하고 한시름 놓는다 싶은 것도 잠시, 2기 팀장을 맡아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눈앞에 놓인 여러 사정과 형편들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를 끝까지 내모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팀장으로 섬기며 2기 훈련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개강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으로 에스라홀로 들어섰을 때,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솟는 뭉클함과 함께 내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은혜의 눈물은 현장전도를 나가기 전까지 강둑이 무너진 것처럼 계속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앞장서서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한 강한 부담이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감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아시고 함께하신다는 마음과 함께 시작 전부터 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함께 묶어진 팀원들은 모두 처음 보는 얼굴들이어서 서먹함이 있긴 했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스스럼없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팀원 김순덕집사님, 윤미경집사님, 박성희집사님, 이들 모두는 감사하게도 이미 전도에 대한 열정과 은혜가 넘쳐나는 전도일꾼들이어서 오히려 제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서로에게 도전을 받으며 열심을 다하며 기쁨과 기대가 넘치는 그 귀한 그 모습을 보며 전도훈련이야말로 우리 육은 죽고 영은 살아나서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리는 훈련임을 실감케 하였습니다. 첫날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제가 먼저 반갑게 다가가서 마음을 열수 있었고, 8주 내내 하나 되어 행복하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전도의 유형들이 달라서 긴장을 늦출 수 없어 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한주 한주를 감당했지만 주님께서는 전도할 대상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고 '너희 중에 작은 자가 천 을 이루고 그 약한자가 강국을 이룰 것' 이라는 마음을 주시며 늘 제 마음을 기대감으로 설레게 하셨습니다. 우리성도들은 누구나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혼자서는 생각만으로 그칠

훈련





2017 BJ전도훈련
사랑방 전도축제

때가 다반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주별로 다른 전도 내용과 전도 대상을 놓고 현장감 있는 전도훈련을 받고 함께 바로 현장전도 실습을 나가보고, 또 주중에 팀원들이 함께 모여 한번 더 도전 해봄을 통해 함께 하면 더 쉽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이 BJ전도훈련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전도내용에 맞추어 준비된 전도용품과 복음제시용 책자를 제공 받을 수 있어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담스럽거나 경쟁적인 분위기가 아닌 따뜻하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돕는 분위기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혼구원의 주님의 역사가 가장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며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한 2기 그리고 팀장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을 마칠 때는 이미 하나 되어 정이 들어 버린 팀원들과의 헤어짐이 너무나 아쉬웠고, 더 충성하지 못하고 더 열심을 다하지 못한 제 모습에 아쉬움이 남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더 단단한 모습으로 저를 다듬으시고 사용하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내 모든 소망과 삶의 목적을 그분께 두고 제게 명하신 일 그 일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행복한 전도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좌절했지만

일본 단기선교에서

글 / 김예인

이번 단기선교를 준비하면서 맡은바 사역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일본 청년들을 향한 넘치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역 환경과 상황이 결코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40도에 육박하는 후쿠오카의 무더위 속 에어컨 없이, 그리고 하루에 20마리씩 나오는 바퀴벌레와 한 지붕아래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는 것, 사역 당시 시험 기간까지 겹친 큐슈대학생들에게 '코리안 나이트에 올 수 있냐'는 질문의 잇따른 거절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 하나님께서는 단기선교를 떠나기 전 제 오랜 기도제목이었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이 기도제목이 다시금 생각나게 하셨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고, 보이는 상황에 조금이라도 신뢰가 흔들렸던 저를 보게 하셔서 마음깊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정말 한 영혼,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함으로 사역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며 그분의 때에 일본 땅의 복음화를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제게 간증의 기회도 허락하셨습니다.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좌절하고 낙심하며 마음 아파했을 때 내가 너의 삶의 이유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걸어온 삶으로 증거하게 하셨고 기쁨의 고백이 그들 앞에 넘쳐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로



써 우리가 경험한 사랑을 당신께 전하기 위해 이곳에 오게 되었음을 진솔한 마음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팀 사역이 끝난 뒤에도 결신한 일본 청년들이 교회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번 선교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고 은혜였습니다. 당장에 일본 땅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본 땅을 변화시켜 가실 것 입니다. 그분의 때에,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좌절하고 낙심하며 마음 아파했을 때 내가 너의 삶의 이유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민직 목장을 소개합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매 주일 목장모임이 기다려지는 1청년부 이민직 목장을 소개합니다. 현재 1청년부는 매주 3부 예배 이후 목장별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목장은 21세부터 26세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생부터 직장인 까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청년들이 함께 삶을 나누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의 소중한 순원들을 한명씩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목장에서 맏형을 담당하고 있는 이호걸 형제가 있습니다. 부산중앙교회의 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호걸 형제는 현재 실용음악 보컬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은사를 3부 예배 찬양 인도의 자리에서 사용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헌신하고 있는 귀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저희 목장에서 맏언니를 담당하고 있는 구재연 자매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영어 통번역을 전공하였으며 졸업을 앞두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대학 생활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오랜 시간 타지 생활을 하며 많이 힘들 수도 있지만 늘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재연 자매의 모습을 통해 저를 비롯한 목장의 순원들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자매입니다.

이어서 저희 목장의 귀한 직장인 최수영 자매가 있습니다. 지난 6월, 청년부 새가족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목장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우리 교회에 온지 두 달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서 조금은 어색하고 힘들 법도 한데, 항상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데 힘쓰는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매입니다.

다음은 이서경 자매입니다. 대학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하고 있으며 열심히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는 졸업반이자 예비교사입니다. 임용고시 라는 큰 시험을 앞두고 마음이 분주하거나 불안할 수도 있는 시간 속에서, 예배와 목장 모임 참석을 게을리 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며 날마다 깊은 교제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모습이 아름다운 자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목장에는 예비 의료인 최해연 자매도 있습니다. 올해 초 우리 교회를 찾아와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저희 목장을 통해 청년부에서 상반기를 함께 했습니다. 해연 자매는 현재 대학에서 치위생학을 전공하며 실습과 학업을 병행하며 의료인으로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청년부의 구성원이 되어가는 모습으로 자주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자매입니다.
이외에도 저희 목장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학교생활로 인해 방학 때만 잠시 볼 수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김한길 형제와 송원경 자매, 유학을 앞두고 짧은 기간 동안 함께 했지만 소중한 시간을 가졌던 이진우 형제, 타지에서의 직장 생활과 잦은 출장으로 바쁜 유일국 형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인재 형제, 장성호 형제, 장준우 형제, 조장현 형제 까지 한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장인 이민직 형제를 소개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영어교육과 교육학을 전공하였고 이제 졸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독교사의 삶을 꿈꾸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쁜 삶 속에 순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기 쉬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공동체 생활에 더욱 헌신하며 힘쓰는 이민직 목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장은 한 주에 한번, 각 지역별로 모이는 소그룹입니다. 다양한 연령과 시간, 남, 녀, 부부목장이 있습니다. 가족처럼 편하게 음식과 말씀을 나누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천곤명교회 1박2일

2017 국내선교 농촌봉사 2017.07.31(월)~8.1(화)



◀영상보기



농촌 봉사활동을 위해 많은 분들이 직장에 휴가를 내고, 운영하는 가게 문을 닫고 오셨습니다. 땀흘려 봉사한 42명의 봉사자들의 손길이 값진 거름이 되어 어려운 개척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사역자들에게는 힘이 되었고 마을 주민들에게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족 전원이 처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올 때는 걱정했는데 마치고 나니 너무 은혜가 된다"고 하신 가족도 있었습니다.

계획에 없었던 초청잔치를 노래강사 초청으로 급히 정한 것이 곤명교회의 바람과 맞아 마을주민들과 즐거운 시간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유년부 여름수련회

7.28(금)~30(주일), 유년부실 외

유년부 3학년 정종둘 목장 김다엘

여름 수련회를 참여하기 전의 나의 마음은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었다. 수련회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도회 시간에 여러 가지로 많이 기도해서 참 좋았던 것 같다.

나는 이번 여름수련회에서 아쉬운 점은 프로그램 시간들이 너무 짧게 느껴져서 아쉬웠다.

여름수련회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시간은 클레이 아트 시간 활동이 좋았고, 설교시간이 좋았다. 설교가 내용이 있고 재미있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설교시간에는 신앙에 관해서 모르는 부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다.

여름수련회를 마치고 난 후 새롭게 결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꼭 계속 믿어야지 하고 결심했다.

유년부 3학년 허정훈 목장 김하은

여름수련회를 참여하기 전의 나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니 매우 기대가 되었다. 긴장도 되었다.

여름수련회를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은 즐겁게 친구들과 찬양한 것이고 아쉬운 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영장을 같이 가지 못한 것이다.

여름수련회를 마치고 난 후 새롭게 결심한 것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친구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번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클레이 아트시간이었는데 활동시간이 참 재미 있었다. 그 전 수련회에서는 찬양하고 기도회만 해서 뭔가 아쉬었는데, 이번 수련회에서는 친구들이랑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전체적으로 수련회 프로그램이 다 재미있었다. 또, 미니 올림픽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즐겁게 한 것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다음에는 수련회 때 찬양을 좀 더 많이 하면 좋겠고, 친구들도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한 마디는 죄,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한 마디이다.



초등부 여름수련회

7.24(월)~26(수), 경주,어린이전도협회

2017년 7월 24일부터 경주에서 이틀간 진행된 초등부 여름수련회는 그야말로 모두가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참석한 경주 '어린이 전도협회' 위탁수련회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즐겁고 재미있는 여러가지 신선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었고 부흥회와 소그룹 시간을 통하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경주월드와 캘리포니아 비치에서의 휴가 또한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이번 여름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항상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중등부 여름수련회

7.24(월)~26(수), 세정인력개발원(양산)

중1 최예나

〈WHO AM I〉를 주제로 하는 여름 수련회를 통해 나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를 또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의 많은 프로그램 중, 미니 올림픽과 영상 패러디가 가장 재미있었다.

둘째 날 저녁 집회 때에는 선배가 후배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중2 민수연

지난겨울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여름 수련회는 언제쯤 갈까 생각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련회가 끝나가니까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기대했던 만큼 정말 유익하고 은혜롭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휴대폰을 걷고 그 덕분에 친구, 언니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도 보내고 유익했던 것 같다. 요한복음 특강 때는 요한복음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되었다.

또한 저녁 집회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하나가 너무 좋았고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게 찬양했다. 설교 시간에도 집중해서 듣고, 기도회 시간에는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후배들까지 함께 손잡고 기도하니까 더 은혜로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께 정말 감사했다. 이제 수련회는 끝나지만, 수련회가 끝나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자라가는 중등부 파이팅!



고등부 여름수련회

7.27(목)~29(토), 김천 비손헤븐캠프

A○○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항상 의심해왔었는데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가장 행복 할 때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살아갈 힘을 얻고 사는 이유가 복음에 있다는 걸 진정으로 깨닫고 내가 행복해 질 수 있는 그 길로 가기로 마음 먹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드디어 내가 8개월 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의심이라는 게 나를 너무 괴롭혀왔는데 그것들을 떨치고 하나님말씀 붙들고 살 것이라는 결단을 주셨다. 유함이 뭔지 알게 해주셨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셨다.

예수님이 보고싶고 사랑합니다.

B○○

수련회 열기가 너무 뜨거웠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보고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특강 시간에 현대 종교 탁지원소장님의 이단 특강을 들었는데 이단의 세력이 그렇게 큰지 몰랐는데 실감하게 되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수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부끄럼 없는 준비된 삶을 살기 위해 간구하고, 절제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스스로 노력해야겠다.

다음 수련회는 더 많은 지체들이 참가하여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1청년부 여름수련회

8.1(월)~4(목), 세정인력개발원(양산)





1청년 이영주

이번 수련회는 내가 처음으로 청년부에서 가졌던 여름 수련회였다. 학교 캠프 행사 때문에 첫날부터 참석하지 못하고 둘째날부터 참석하여서 너무 아쉬웠다. 그래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첫 성인이 된 후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 빠져서 지었던 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눈물로 기도 드릴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수련회 기간도 너무 길고 캠프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서 참석할지 말지 고민을 매우 많이 하였는데 고민한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좋은 시간이어서 다음 수련회때도 꼭 참석하고 싶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에서 한 기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감정들과 은혜 받은 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



2청년부 여름수련회

7.27(목)~29(토), 홀리조이센터(영도)

2017년 7월 27일~29일까지 2박3일간 영도 홀리조이센터에서 김우환목사님을 모시고 2청년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60여명의 지체들이 바쁜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내어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교회 안의 식물들 알아가기

무궁화, 샤론의 장미?

글 / 이주선 권사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아가2장1절)"-킹제임스 성경

무궁화의 영어 이름은 샤론의 장미(rose of sharon)입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영어성경에 같은 이름의 꽃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궁화를 성경에서 지칭하는 그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 우리의 무궁화가 샤론의 장미라는 설, 둘째, 샤론의 장미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바쩰레트'인데 이것은 초원에서 자라는 꽃, 들백합화 등으로 설명되어있으므로 실제로는 무슨 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설, 셋째, 영국에서는 알데아로사라는 접시꽃을 샤론의 장미일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김새가 비슷한 무궁화와 착각해서 무궁화를 샤론의 장마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궁화의 영어 이름이 샤론의 장미(rose of Sharon)이기는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그 꽃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무궁화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꽃이었습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러했기에 일제 강점기, 국권을 잃음과 동시에 무궁화가 핍박을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궁화를 쳐다만 봐도 눈이 먼다거나 벌레가 들끓어 몹쓸 꽃이라거나 키우기가 까다롭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무궁화를 베어내기까지 했다는군요. 무궁화에 진드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영국의 상징 장미의



십분의 일만 신경 쓰면 될 정도로 키우기가 쉽다는 것이 학자들의 말이니 일제 강점기에 퍼진 무궁화에 대한 이야기에 악의가 담겨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국화라고 정해놓기만 했지 우리나라의 공공장소 식재율은 벚꽃에 비해 한참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 아주 가까운 어른에게서 무궁화에 대해 헐뜯는 말을 들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심어놓은 그 인식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서는 여러 무궁화 종류가 관상수로 상당히 사랑을 받고 있는 것과 견주어봐도 우리나라의 무궁화는 국화로서 너무나 홀대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거나말거나 우리 교회 한 켠에서 이번 여름에도 무궁화는 조용히 피었다 지기를 반복하며 끝없이 핀다는 그 이름, '무궁'에 어울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꽃 민들레

이분선 성도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날
어정대다 교회에 오르는 차를 놓쳤다
나는 죽기 살기 걸어 오른다

담장 밑 길옆에 민들레가 피어있다
차를 타고 지났으면 못 보았을 이 꽃
셋노란 민들레꽃 참으로 아름답다

담장 밑 틈새에 피어있는 민들레 꽃
걸어 오르지 않았으면 못보고 지나칠 꽃
두 송이는 손을 잡듯이 나란히 피어있다
정말 정말 예쁘다

홀씨도 한들한들 여물었네
바람아 불어라 홀씨야 날아가라
넓은 땅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아라
걸어서 오르게 된 내가 오늘은 고맙다



담임목사 최현범

교회의비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상을 변혁하는 교회



표지사진 사랑방 전도축제

주일예배
1부 9:00 은혜홀(2층)
2부 11:00 은혜홀(2층)
3부 14:00 은혜홀(2층) 청년과함께

수요예배
오후 7:30 은혜홀(2층)

담임목사 설교방송
부산극동방송(FM 93.3MHz)
수요일 오후2:30~3:00
부산CBS라디오(FM 102.9MHz)
토요일 오후1:30~2:00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산로 42

홈페이지
www.ejoongang.or.kr

주일학교
영아부 11:00 본당3층 영아부실
유치부 11:00 교육관1층
유년부 11:00 교육관4층
초등부 11:00 교육관지하
중등부 11:00 수련관1층
고등부 11:00 교육관5층

사무실 051) 624-4554
교역자실 624-6046
담임목사실 624-6050
중보기도실 624-0924
어린이집 624-6047
팩 스 624-4555

발행처 부산중앙교회
발행인 최현범 담임목사
편집장 윤화영
취재, 에디터 표임두,박문태,
고인국,곽규종,이영석,
손정훈, 강희정
교정 이주선
로고 김진아
사진 강동우, 오정훈

절실한 것은 사랑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닿고 싶어
미친 듯 페달 밟은 발
허벅지 아프도록 저어댔다.
달리고 달렸지만
거기서 거기더라.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것과
지금까지 생존하던 그곳과
지내 온 그들을 벗어나
머문다 하더라도

겨우 얻은 깨달음
세상의 삶속에서
맞닥뜨리는 건 실바람 같은 외로움,
잡히는 것은 허무함, 눈 감아도 사라지지 않는
설움뿐이란 것을

절실한 것은 오직 사랑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

글 사진 / 강동우 집사

